

Verdict

시장은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위기 국면에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안전자산 지위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간 7.6억 달러 ETF 순유입과 1개월 수익률 +15.13%의 강한 모멘텀이 매크로 역풍을 압도한다고 보고 있음. 4월 중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통과 기대감과 블랙록 주도의 기관 자금 유입이 구조적 공급 변화를 이끌며 73,773달러선을 기반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임.

이는 부분적으로 맞는 판단이나 과도한 낙관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 결정적으로, 직전 판정(3/15)의 무효화 조건이었던 'BTC 1개월 수익률이 2주 내 +5% 이하로 감속'이 충족되지 않았음. 오히려 1개월 수익률이 +11.1%에서 +15.13%로 추가 가속되어 강제 모멘텀이 강화된 상태임. 뷰 전환 마찰 규칙에 따라 직전 롱 뷰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값이며, 이를 뒤집을 구체적 증거가 부재함. 다만, 가설 A의 '금 대비 우월한 수익률' 내러티브는 데이터와 명확히 불일치함. 금(GOLD)은 3개월 수익률 +16.37%, 고점 대비 낙폭 -5.91%인 반면, BTC는 3개월 -22.61%, 고점 대비 -23.89%(6개월 기준 -40.86%)로 금 대비 절대적으로 열위에 있음. 1개월 구간에서만 BTC +15.13% vs GOLD -0.36%로 BTC가 우세하나, 이는 급락 후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함. VIX 25.65의 '공포' 영역 지속과 US10Y 4.28%의 고금리 환경은 구조적 부담이나, BTC-NDX 상관관계 데이터가 'insufficient data'로 반환되어 핵심 질문인 리스크온 자산 회귀 여부를 직접 검증할 수 없었음. T10Y2Y 0.55의 양수화와 ICSA 21.3만의 견조한 고용은 경기 연착륙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며, 이것이 기관 자금의 위험자산 재배분을 정당화하는 매크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 종합하면, 모멘텀 가속이 무효화 조건 미충족으로 롱 뷰를 유지하되, 3개월 구조적 하락 프레임(-22.61%)이 해소되지 않았고 금 대비 안전자산 내러티브가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아 확신도는 3으로 하향 조정함.

Action: BTC 롱 포지션 유지하되 소폭 조정 권고. 1개월 모멘텀 +15.13%의 가속이 확인되나 3개월 -22.61% 구조적 하락 프레임 미해소로 비중 점진적 축소를 병행.

Invalidation: BTC 1개월 수익률이 향후 2주 내 +5% 이하로 감속할 경우 강제 판정을 전면 재검토

Risk Factors: 매크로: VIX 25.65 '공포' 영역 지속과 US10Y 4.28% 고금리 조합이 장기화될 경우, 2022년 하반기와 유사한 리스크온 자산 전반의 디레버리징 환경이 형성되어 BTC 하방 압력이 재점화될 수 있음, 기술적/포지셔닝: BTC 연환산 변동성 0.441(44.1%)이 GOLD 0.2695(27.0%) 대비 1.6배 수준으로, 73,773달러선에서의 숏 스쿼즈 실패 시 65,000달러 이하로의 급격한 되돌림이 발생할 수 있으며, 3개월 수익률 -22.61%의 하락 추세선이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이벤트: 암호화폐 시장구조법이 상원 농업위 마크업(12:11 근소 통과)을 거쳤으나 본회의 통과까지 상원 은행위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한 쟁점이 미해결 상태로, 4월 시한 내 입법 무산 시 90% 낙관론의 급격한 되돌림이 하방 촉매로 작용

Macro Picture

Regime: transition

Key Themes: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디지털 금(Digital Gold) 서사 강화, 현물 ETF를 통한 기관 중심의 공급 충격(Supply Shock), 미국 암호화폐 규제 입법(시장구조법) 통과 기대감

Dominant Narrative: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금 대비 우월한 수익률을 기록하며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음. 주간 7.6억 달러 규모의 ETF 순유입과 블랙록의 점유율 확대, 그리고 4월 중 미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통과 확률 90%라는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

Reality: VIX가 25.69로 상승하고 US10Y 금리가 4.28%를 기록하는 등 전통적 위험자산에는 부담스러운 환경임. 그러나 T10Y2Y 스프레드가 0.55로 양수화되며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존재하고, ICSA(21.3만 건)가 보여주는 견조한 고용 시장이 비트코인의 73,773달러선 안착을 뒷받침하고 있음.

Hypotheses

Key Question: 비트코인의 1개월 수익률 모멘텀이 향후 2주 내 +5% 이상을 유지하면서 나스닥(NDX) 대비 양의 상관관계가 0.5 이하로 구조적 탈동조화를 보이는가, 아니면 VIX 고점 구간에서 NDX와의 상관관계가 0.7 이상으로 재수렴하며 리스크온 자산으로서의 하방 압력에 노출되는가?

Tensions

지정학적 리스크 속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는 안전자산으로 부각되나, VIX 25.69 및 10년물 금리 4.28% 도달 등 매크로 지표는 전형적인 위험자산 회피 신호를 보내고 있음.

0.70

Narrative: 중동 분쟁 등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금 대비 우월한 수익률을 기록하며 '디지털 금'으로서의 안전자산 지위를 강화함.

Reality: 공포지수(VIX)의 급등과 고금리 유지는 기술주와 비트코인 등 고변동성 리스크온 자산의 밸류에이션에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함.

BTC GOLD VIX US10Y

암호화폐 시장구조법의 4월 통과를 90% 확률로 낙관하고 있으나, 해당 시점을 놓칠 경우 연내 입법이 무산될 수 있는 시한부 리스크가 존재함.

0.50

Narrative: 4월 중 미 암호화폐 규제 입법 통과 확률이 90%에 달한다는 낙관론이 지배하며 제도적 수혜 기대감이 점점에 달함.

Reality: 입법 전문가들은 4월이라는 분수령을 넘길 경우 올해 안에는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을 병행하여 제시함.

BTC ETH

기관의 ETF 자금 유입이 강력한 하방 지지선을 형성한다는 믿음과 달리, 실제 가격은 단기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며 높은 변동성을 노출함.

0.40

Narrative: 블랙록 등 기관 중심의 주간 7.6억 달러 규모 ETF 순유입이 공급 충격을 유도하며 안정적인 가격 상승세를 뒷받침함.

Reality: 비트코인 가격이 73,773달러선에서 65,000달러선까지 약 11.8% 하락하는 등, 기관 수요가 자산 고유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전히 상쇄하지

BTC NDX

Alternatives

GOLD - 금(Gold)

3개월 수익률 +16.37% 및 낮은 낙폭(-5.91%)을 기록하며, VIX 25 이상의 고변동성 국면에서 비트코인 대비 실질적인 안전자산 역할을 수행함.

UUP - 인베스코 달러 인덱스 ETF

10년물 국채 금리 4.28%의 고금리 환경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Risk-off) 심리가 강화되며 달러 강세를 지지함.

WTI - 서부 텍사스산 원유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긴장 포인트의 핵심인 상황에서, 공급망 차질 우려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 상승 수혜를 누릴 수 있음.

Eval Scores

PASS

Overall	<div style="width: 42.5%;"></div>	4.25
Tension	<div style="width: 50%;"></div>	5
Hypothesis	<div style="width: 50%;"></div>	5
Evidence	<div style="width: 30%;"></div>	3
Verdict Logic	<div style="width: 40%;"></div>	4

Feedback: 긴장 분석과 가설의 대칭적 구조는 매우 우수하나, 매크로 데이터의 정합성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됨. 특히 T10Y2Y 스프레드 0.55(양수)는 실제 비트코인이 73K-65K 구간에 머물던 시기의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음수)과 정반대되는 데이터로, 경기 연착륙 논거의 신뢰성을 저해함(strict penalty 적용). 또한 비트코인이 3개월 수익률 -22%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금' 내러티브를 가설 A의 주축으로 유지하는 것은 데이터와 내러티브의 괴리가 큼. 향후 재시도 시, FRED 데이터의 최신성 검증 로직을 강화하고, 수익률 데이터가 내러티브를 직접적으로 반박할 경우 가설의 가중치를 즉각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반영할 것.

시장의 뷰: 시장은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위기 국면에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안전자산 지위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간 7.6억 달러 ETF 순유입과 1개월 수익률 +15.13%의 강한 모멘텀이 매크로 역풍을 압도한다고 보고 있음. 4월 중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통과 기대감과 블랙록 주도의 기관 자금 유입이 구조적 공급 변화를 이끌며 73,773달러선을 기반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임.

결론: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구조적으로 유효하며, 1개월 수익률 +11.1% 모멘텀 가속과 주간 7.6억 달러 ETF 순유입이 VIX 25.69 · US10Y 4.28%의 매크로 역풍을 압도하여 73,773달러선을 기반으로 추가 상승이 전개될 [MEDIUM]

이는 부분적으로 맞는 판단이나 과도한 낙관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 결정적으로, 직전 판정(3/15)의 무효화 조건이었던 'BTC 1개월 수익률이 2주 내 +5% 이하로 감소'가 충족되지 않았음. 오히려 1개월 수익률이 +11.1%에서 +15.13%로 추가 가속되어 강세 모멘텀이 강화된 상태임. 뷰 전환 마찰 규칙에 따라 직전 롱 뷰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값이며, 이를 뒤집을 구체적 증거가 부재함. 다만, 가설 A의 '금 대비 우월한 수익률' 내러티브는 데이터와 명확히 불일치함. 금(GOLD)은 3개월 수익률 +16.37%, 고점 대비 낙폭 -5.91%인 반면, BTC는 3개월 -22.61%, 고점 대비 -23.89%(6개월 기준 -40.86%)로 금 대비 절대적으로 열위에 있음. 1개월 구간에서만 BTC +15.13% vs GOLD -0.36%로 BTC가 우세하나, 이는 급락 후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함. VIX 25.65의 '공포' 영역 지속과 US10Y 4.28%의 고금리 환경은 구조적 부담이나, BTC-NDX 상관관계 데이터가 'insufficient data'로 반환되어 핵심 질문인 리스크는 자산 회귀 여부를 직접 검증할 수 없었음. T10Y2Y 0.55의 양수화와 ICSA 21.3만 건의 건조한 고용은 경기 연속락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며, 이것이 기관 자금의 위험자산 재배분을 정당화하는 매크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 종합하면, 모멘텀 가속이 무효화 조건 미충족으로 롱 뷰를 유지하되, 3개월 구조적 하락 프레임(-22.61%)이 해소되지 않았고 금 대비 안전자산 내러티브가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아 확신도는 3으로 하향 조정됨.

→ BTC 롱 포지션 유지하되 소폭 조정 권고. 1개월 모멘텀 +15.13%의 가속이 확인되나 3개월 -22.61% 구조적 하락 프레임 미해소로 비중 점진적 축소를 병행.

무효화: BTC 1개월 수익률이 향후 2주 내 +5% 이하로 감소할 경우 강세 판정을 전면 재검토

대안: GOLD: 3개월 수익률 +16.37% 및 낮은 낙폭(-5.91%)을 기록하며, V | UUP: 10년물 국채 금리 4.28%의 고금리 환경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위 | WT: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긴장 포인트의 핵심인 상황에서, 공급량

